:: 교단소식 ::

2022 서울·인천교회 여름성경학교

7월의 마지막 주일인 31일, 서울교회 유초등부, 인천교회 유아유치부 및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KBS88체육관과 인천교회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요 6:65)."

코로나 기간 동안 유초등부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작년 말부터 대면예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염려로 회복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준비하는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시듯 많은 영혼들과 봉사자들을 보내주셨다.

여름성경학교의 하이라이트! 성령세례를 받기 전, 이시대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2체육관 가득 선포되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유초등부에 가셔서 성령세례를 주십니까?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행2:17). 유초등부의 어린아이들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열면 모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목사님께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를 해주시며 성령세례를 주셨고, 아이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

사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더욱더 섬세하고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의 발달과 컴퓨터의 발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과의 소통 부재, 이러한 여러 이유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성경학교는 그저 재미에만 치우치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에게 귀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에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따라따라 갈래요 달려달려 갈래요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성경학교의 주제 찬양 가사 중 일부이다.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순종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세상에 빛이 되며 더 이상 세상 자녀처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또한 머리가 되는 어린이가 된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찌니라"(신6:6~9).

마지막으로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성경학교를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성장을 얻어 세상의 빛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

곽신애 전도사, 김성환 전도사

주일예배 노량진(오전) 6시 / 오전(1부) 7시 / 오전(2부) 10시 / 오후(3부) 2시 /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 2부(오전) 10시 / 3부(오후) 2시 /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8월 7일 (제116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의리(義理)

우리는 의리(義理)란 남자들만의 용어로 착각한다. '여자는 절개, 남자는 의리'라고 외쳤던 시절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의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그런데 요즘은 의리가 사라졌다. '의리가 밥 먹여주냐?'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잠10:2).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의리의 여인이 나온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상황에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른다. 고향을 떠나야 하고, 섬기던 신을 바꿔야 하는데도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그런 룻을 축복하사 보아스라는 거부를 남편으로 주셨고, 그 족보를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누가 역시 바울이 옥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등을 돌렸어도 끝까지 바울을 지켰다. 다윗도 요나단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켜 그의 아들인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다면 의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배신'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자, 배신자다. 다윗은 사울에게 의리를 지켰지만, 사울은 다윗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했다. 하나님도 그런 그를 토사구팽(兎死狗烹) 시키셨다.

베드로는 회개는 했지만, 동고동락하겠노라 해놓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리는 다함이 없어 그를 용서하셨고, 그뿐 아니라 그를 수제자로 삼기까지 하셨다.

나도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믿던 자들로부터 뒤통수를 많이 맞았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 왜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는 말씀을 아니까.

돈이나 명예보다 의리를 택하라. 그것이 너를 죽음에서도 건질 것이다(잠11:4).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다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본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성산이기도 했지만,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뜻있는 주의 종과 성도들, 기도원 식구들과 신학교 생도들이 무려 한 달 넘게 가꾼 결과다. 계곡이 흐르는 오솔길, 텐트와 무료로 커피가 제공되는 카페, 운치 있는 야외식당…. 어디 그뿐인가. 성전 안에는 대형 LED, 그리고 등받이가 장착된 좌식 의자까지, 이곳은 정말 영적 휴양소까지 겸비한 곳이다.

집회 첫날, 총회장 목사님은 단에 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3년 동안 닫혀 있던 기도원이 다시 열리니까 악한 마귀공작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치환 장로를 잃게 했고 강산이를 낙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라서 뒤로 물러날 줄 알았겠지요. 천천만만이로소이다. 우리는 더욱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나는 이 집회 기간 동안 하루 두 번 단에 설 겁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목사님은 저녁집회를 12시가 넘도록 인도하신 후에 이튿날 10시 예배도 열정적으로 인도하셨다.

첫날 목사님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15:4)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요15:5).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열매, 곧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건강의 열매, 형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예수님과의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충만해집니다. 성령충만이란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니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비가 장기간 외국에 가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갔습니다.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돈을 사기당하지 않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늘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돈보다 귀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늘 점검하여 불이 꺼지는지 살펴라.' 당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산에 오른 이유는 바로 점검 차원에서입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붓기 위한 것이고, 프로선수가 1군에 계속 살아남기 위해 전지훈련을 하듯 영성 향상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1군 선수와 2군 선수의 연봉이나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네 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 차이는 다릅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방어하는 수준이라면, 네 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래 1군 출신이 감독까지 하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2군 선수도 쉬지 않고 연습하면 1군에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방언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세요. 분명히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받아 포도나무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둘째날 저녁집회에서는 설교 후 병든 자를 다 단에 올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다음주에 계속

2022 하계산상집회(8월 1일~11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야외식당

건강체조

소경이 눈을 뜨는 성령의 역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9:23)

할 수 있단 생각으로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진흙으로 만들기 해보셨지요? 그런데 무작정 진흙을 떼기부터 합니까? 아니죠? 뭘 만들까 생각한 후에 진흙을 뗍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고양이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집도 만듭니다. 미술 시간이 끝날 때 선생님께 내미는 작품은 내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도토리 씨 안에는 참나무가 들어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팔자대로 사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인생은 타고나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뭘로요? 생각입니다. 곧 지금의 나는 과거 내 생각의 결과물이요, 미래는 지금 내 생각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세계를 교구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구(世界敎區)'라는 글씨를 써서 사무실에 걸었습니다. 광명 철산리라는 구석진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들 비웃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 과거 제 생각의 결과물이 어떤지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제 모습을 영상으로 수없이 보셨습니다.

지금 저는 늘 평화통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통일이 되면 대동강 가에서 찬양하고, 김일성 광장을 평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같은 소리 하시네.'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손녀가 어릴 때 저와 함께 화분에 수박씨를 심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싹이 나고 수박이 열릴 거야."라고 손녀에게 말했더니,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열심히 주었더니 어느 날 싹이 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조그마한 수박이 열렸어요. 그제야 손녀가 "할아버지, 진짜로 수박이 열리네요." 합디다. 머지않아 현재 제 생각의 결과물을 우리는 함께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새처럼 날아볼까?' 하는 생각이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세상을 밝혀보리라'는 생각이 전기를 개발했고요, '세상을 하나로 묶어보리라'는 생각이 인터넷을 만든 겁니다.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제 지인은 지금 화성에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우주 화성에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생각의 결과입니다.

궁상맞은 당신, 되는 일이 없는 당신, 실패자라는 오명을 안은 당신의 지금 모습은 과거 당신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늘상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돼', '내 팔자에', '내 주제에', 이런 말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은 생각이란 주머니 속에 있거든요. 병에 사이다가 있으면 사이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에 오줌이 담겨 있으면 오줌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배경이 없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생각에 젖어 있으면요, '못한다,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보면, 먼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지요? 무자한 아브람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주신 것은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아브라함을 밤중에 밖으로 이끌어 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시며 생각을 완전히 바꾸도록 하셨고(창15:5), 그 생각의 결과로 이삭을 낳고,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쓰실 때 그랬습니다. '나는 못한다, 다른 사람 쓰세요.' 하는 모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고,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수족관의 상어 꼴이었으니까요. 오래전에 오키나와에 있는 세계 최대의 아쿠아리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상어가 조그마한 물고기랑 같이 헤엄치며 놀고 있습디다. 잡아먹을 생각을 않고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 상어를 며칠간 굶긴답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으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련사가 상어와 물고기 떼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을 친답니다. 상어가 그걸 모르고 배가 고파서 물고기 떼에게로 달려들려고 하면 벽에 딱 부딪치는 겁니다. 이걸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상어는 '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 벽이 사라져도 절대로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는답니다.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설치해놓고는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해서 아예 '나는 못하는 존재', '해도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해서 운명론이라 믿게 하고, 회의적인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벽을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생각을 바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지갑에 돈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굶어 죽는 꼴이 아닙니까?

사업한다고 제게 와서 기도 실컷 받고는 나가면서, "그런데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래야죠. 제발 생각을 바꾸세요.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너를 준비하셨다'라고 생각을 바꾸어줬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림절의 축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겐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더 썩습니다. 생각이 썩은 자에겐 축복은 독이 됩니다. 먼저 썩은 생각, 잘못된 생각을 잘라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3:14)는 생각이 잉태되어야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다시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진흙은 조금 떼면 절대 큰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적게 뗀 진흙으로는 절대 큰 호랑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호랑이 비슷한 고양이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진흙을 넉넉히 떼야지 큰 작품이 나옵니다. 큰 생각을 하세요. 성경에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고도 하셨습니다. 생각이 커야 큰일을 합니다. 생각이 커야 인물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만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고 넓습니다(사5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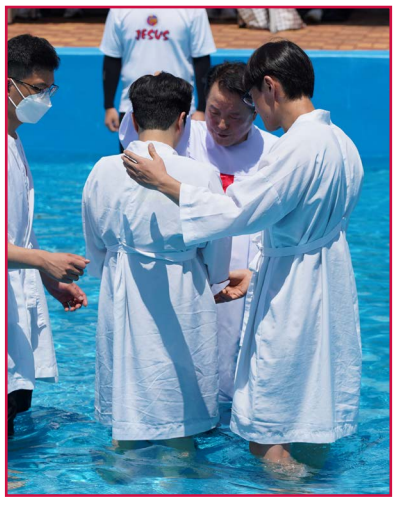
생각보다 무서운 파괴력은 없다

아프면 가족이나 친구가 병문안은 오지만, 수술할 때는 혼자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생각을 바꾸는 수술은 혼자 해야 합니다. 생각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편협한 생각을 잘라내고 긍정적인 생각, 미래지향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큰 생각으로 바꾸세요. 그 생각이 미래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생각이 결과입니다(렘6:19).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적극적인 생각으로 전환해야 하고,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하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뚫었던 네 명의 친구처럼 당신도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그래야 멋진 인생의 작품이 탄생합니다. 인생의 걸작, 대작 하나 만들어봅시다.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생각이란 자동차의 핸들과 같아서 돌리는 대로 차가 움직이듯,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육체가, 당신의 미래가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제24회 전국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 7월 28~30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젊은이가 되자!



:: 교단소식 ::

성공자의 공통점은 부지런함이다

제24회 전국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이어 7월 28일부터 사흘간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되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수련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수련생들이 몰려들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곳곳에서 방언이 터지는 등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메인 찬양을 맡은 '이월드 목사와 월드 프레이즈' 찬양팀은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고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수련회 첫날, 청년들의 집중하는 모습과 열정적인 에너지에 반하신 목사님이 3시간이 넘게 폭포수 같은 성령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특히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저녁 집회뿐만 아니라 오전 비전세미나도 직접 강단에 서시며 '나만큼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나? 나를 본받아라' 하시며 인생의 성공 노하우를 가르쳐주셨다. 그리고 교단의 목사님들은 젊은이들과 함께 산행을 하시며 젊은이들에게 자연이 주는 감동과 산과 계곡, 하늘과 땅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해주셨다.

첫날 저녁 집회, 목사님께서는 '성공자의 공통점은 부지런함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다. "부지런한 자의 논과 밭에는 잡초가 없다. 이는 책임감이 부지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과거 6 · 25전쟁 이후 어려웠던 우리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부국강병하게 만들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한다. 나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 가정을, 한 기업을,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자가 성공하듯 하나님도 부지런한 자가 먼저 만난 것을 기억하라."

이어 둘째 날 오전 비전세미나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간접자본을 잘 활용한다.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것이다. 모든 것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얻길 바란다."

둘째 날 저녁 집회 때는 '인생은 운명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내 생각의 결과물을 볼 것이다'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다. "나는 세계교구라는 생각을 했기에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넓혀라.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나보다 더 큰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란다!"

목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시며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가을에 한 번 더 하자."고 말씀하셨다. 은행잎이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 다시 한번 예수중심교단의 미래 젊은이들이 모이는 추계 청년대학 연합수련회를 기대하며, 2022 전국 청소년연합수련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송현혜 생도
charisma0691@hanmail.net